

# 전남 슬로시티 '대박'...올 관광객 140만명 찾았다

## 담양 창평·완도 청산도·신안 증도 3곳...지정후 7배 급증

전남도는 담양 창평,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 슬로시티를 방문한 관광객이 11월 말 현재까지 128만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2만명)에 비해 16만명이 늘어나고 지난 2007년 지정 당시(20만명)보다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연말까지 140만명의 관광객이 슬로시티를 다녀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관광객 수는 2009년 55만명, 2011년 125만명 등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슬로시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안길 등 생활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한옥민박과 슬로푸드 체험장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왔다.

슬로시티를 친환경적으로 보존 관

리하기 위해 전기차, 전기 자전거, 조립식 등 저탄소 교통수단을 도입했고 신안 증도는 '차 없는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증도대교 입구에 2015년까지 3만㎡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슬로시티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신안 증도의 '1004 길벗 주민여행사'처럼 주민 주도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나가고 있다.

슬로시티 지역이 보유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여행사와 함께 남도명품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슬로시티 지역의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소개한 '여유와 추억을 만들어가는 슬로시티 전남' 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책자에는 담양 창평의 고택과 돌담길, 완도 청산도의 유채밭과 구들장

사이를 지나가는 슬로길, 신안 증도의 태평염전과 갯벌 위에 놓여진 짚뿔어더리, 친환경 농수산물을 만든 신토불이 슬로푸드 등 슬로시티 구성요소가 소개돼 있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슬로시티는 놓여진 관광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정착했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여수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부 풍경.

## 여수 'CCTV 통합관제센터' 치안유지 파수꾼 역할 '톡톡'

### 7개월간 무려 300여건 사건·사고 해결

여수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7개월여 동안 모두 300여건의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등 치안유지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는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등의 전문 관제요원 26명이 24시간 상주해 지역 곳곳에 설치된 1079대의 CCTV에서 촬영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해 위치 파악은 물론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해 자동 추적 후 확대저장하는 지능형 자동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위험구역에 경계를 설정하고 배회 등 이상행동을 자동 감지

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을 운영, 사건·사고 발생 시 결정적인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모두 300여건의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단서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치안유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과 15일에는 차량 특수검도범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여수경찰서장이 관제요원들에게 감사장을 주기도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과 같은 24시간 감시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다양한 첨단 기법들을 동원한 수준 높은 관제를 통해 안전한 도시를 이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광양제철 무인안내시스템 가동...방문객 편의 제공

광양제철소(소장 백승관)가 무인안내시스템을 가동해 방문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광양제철의 보안전문회사(주)코스윈이 6개월에 걸쳐 자체개발한 '무인 입출입 안내 시스템'은 방문객들의 입·출입, 물품 반출·입 업무, 견학 안내 등에 터치스크린 형식의 음성검색 기능을 갖춘 최첨단 시스템이다.

광양제철은 그동안 인원 입·출입과 물품 반출·입 업무, 방문객들의 일반적인 문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하지만 무인안내 시스템 설치로 공장 위치와

견학 안내 등 방문객의 일반적인 내용까지 상세한 안내가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시스템 개발 담당 한대희씨(45)는 "공공시설 안내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방문객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용자 입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무인안내 시스템은 광양제철소 관련 안내뿐만 아니라 광양시의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 원거리 방문객들의 이용편의를 돕는 멀티형 안내 시스템으로 방문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돕게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남진 로하스타운 기공식이 19일 오후 장흥군 안양면 현장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명흠 장흥군수,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흥=김용기기자·주부취재본부장

## 국내 최초 은퇴도시 장흥 '로하스타운' 첫 삽

### 안양면에 3600억 들여 1500가구 건립...내년 10월 입주

전남도와 장흥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은퇴도시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19일 기공식은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명흠 장흥군수,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은 장흥군 안양면 기산·비동리 일원에 3600억원을 투입, 233만㎡의 택지 개발, 1500가구 주택 건축을 비롯한 골프·스마 등 체육시설, 의료시설, 상가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대규모 복합기능의 은퇴도시 조성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랜드러브스코리아(주)는 사업을 총괄하고 대우산업개발(주)은 시공을, (주)대명기술개발은 설계를 각각 맡아 2019년까지 '정남진 로하스타운' 택지 개발과 주택 건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현재 1단계 지구 43가구의 청약이 완료됐다. 내년 10월에 안양면 기산리 3만㎡(9000여평) 규모에 66㎡(20평형), 82㎡(25평형), 99㎡(30평형) 등 구조로 43가구 주택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10개 블록으로 조성되는 '정남진 로하스타운'은 절토·성토를 최대한 줄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등

등고선을 따라 자연스런 지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은퇴자를 비롯한 귀농·귀촌자 등 3000~4000여명이 입주하는 등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선도사업인 장흥 로하스타운을 중점 개발해 성공사례로 확산하는 등 도내 46개 은퇴도시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은 오염되지 않은 땅,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온화한 기후, 저렴한 땅값과 생활비 등 살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기공식을 계기로 은퇴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주부취재본부장



## 전남개발공사, 초중고생 등 80명 초청 '사랑나눔행사'

전남개발공사가 '사랑나눔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8일 오후 공사 대강당에서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등 80여명을 초청해 '사랑나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전승현 사장을 비롯해 여직원모임인 여우회(女友會·회장 김희영 과장) 회원들이 함께 해 레크리에이션과 영

화상영, 선물 증정, 식사(뷔페)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 사장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와 도전정신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격려하고 여우회 회원들도 '사랑의 대화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멘토 역할을 했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 영산강 유역 역사·문화 자원 연계

### 나주시, 관광활성화 방안 추진

나주시가 영산강 유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산강 황포돛배 운항기간을 연장하고 전년 목사골을 순회하는 버스투어 상품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영산포~죽산보를 운영하는 황포돛배는 승선보에서 죽산보까지 20여km 구간으로 연장된다.

현재 2척의 황포돛배 말고도 유람선 용도의 선박 1척을 신규로 건조하고 배 안에 카페와 특산물 판매코너 설치 등도 고려하고 있다.

황포돛배가 운항하는 영산강 독일에는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하고, 직접별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버스투어는 승선보를 시작해 나주읍성 권역과 영산포, 백호문화관, 천연염색박물관, 죽산보, 영상테마파크, 국립 나주박물관 등을 돌아본다.

나주시는 이와함께 영산포에 35억 원을 투입, 식도락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대거 거주했던 영산포에는 당시 일본인 가족과 관광객 건물이 아직 남아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